

‘마지막 한 곳’ 아쉬웠다…페퍼스, 풀세트 접전 끝 패배



V리그 4라운드 GS칼텍스에 2-3 역전
조이 36득점에도 리시브·범실 아쉬워

페퍼스측은행 AI페퍼스가 치열한 접전 끝에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연패에 빠졌다. 페퍼스는 지난 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GS칼텍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3(27-25 18-25 25-19 18-25 15-17)으로 역전패했다. 1세트를 가져가고 3세트도 따내며 세트스코어 2-1로 앞서 승리에 다가섰지만, 4세트 흐름을 내준 뒤 5세트 승부처에서 ‘마지막 한 곳’이 모자랐다. 5세트가 듀스까지 이어진 만큼 패배의 아쉬움은 크지만, 원정에서 5세트까지 끌고 가는 힘을 보여줬다. 1세트 출발은 좋지 않았다. 세트 중반 8-9에서 GS칼텍스 실바와 레이나가 연속 득점을 만들고, 최유림까지 조이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잡아내며 8-14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페퍼스는 시마무라와 조이를 앞세워 추격

을 시작했고, 정솔민의 서브에이스와 박정아·조이의 블로킹으로 실바와 레이나를 연달아 막아내며 21-19 역전에 성공했다. 듀스 접전 끝에 박은서와 조이가 킥오피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27-25로 1세트를 가져왔다. 하지만 1세트에서 가져온 흐름을 굳히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2세트를 18-25로 내줬다. 3세트는 초반부터 공격이 살아나면서 25-19로 세트를 가져왔다. 세트스코어 2-1에서 시작한 4세트, 10-10 이후 GS칼텍스 실바와 권민지의 연속 득점에 밀리며 10-16까지 끌려갔다. 페퍼스가 16-18로 격차를 좁히며 접전을 이어갔으나, 범실이 겹치며 18-25로 세트를 내줘 승부는 5세트로 넘어갔다. 마지막 5세트는 한 점이 승부를 갈랐다.

페퍼스는 끝까지 따라붙어 승부를 듀스까지 끌고 갔지만 15-17로 결국 경기를 내줬다. 풀세트 패배로 ‘승점 1점’을 챙겼지만, 다시 또 연패에 빠졌다. 조이가 36점으로 양 팀 최다 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이날 트리플크라운 달성에 서브 1개가 모자란 활약도 펼쳤다. 시마무라는 14점, 박은서 11점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박정아는 7점으로 힘을 보탤지만 승리에는 역부족이었다. GS칼텍스는 실바(31점), 레이나(21점)에 더해 2세트 교체 투입돼 존재감을 보여준 권민지(13점)가 이날 경기의 변수가 됐다. 페퍼스는 지난달 30일 홈에서 GS칼텍스를 3-1로 꺾으며 9연패를 끊어냈지만, 이날 다시 승부처에서 마무리가 아쉬운 경기를 남겼다. 이날 패배로 페퍼스는 승점 21(7승 13패)로 6위에 머물렀고, 4위 GS칼텍스는 승점 30(10승 10패)으로 3위 흥국생명(승점33)을 승점 3점 차로 추격했다. 페퍼스는 9일 오후 7시, 홈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선다. /박은기 기자 training@kwangju.co.kr



페퍼스가 지난 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GS칼텍스와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하며 연패에 빠졌다. <KOVO 제공>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광주 국가대표 선수단이 7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으로 대표자 선서를 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전남 국가대표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광주·전남 선수단 “새 시즌 선전 다짐”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가 스포츠의 해’를 힘차게 열었다. 7일 충북 진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2026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즌 각오를 다졌다. 올해는 2월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 이어 9월에는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안게임도 열린다. 3월 월드컵베이스볼클래스(WBC), 6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까지 굵적굵직한

스포츠 대회가 이어지면서 병오년인 2006년은 ‘메가 스포츠의 해’로 꼽힌다. 이날 행사에서 양궁 지존 김우진과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 그리고 근대 5종 김성진 감독이 대표자 선서를 하며 새해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전남 소속 선수들도 개시식에 참여해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임직원도 행사에 참여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소속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 소속 국가대표는 17개 종목 31명(선수 27명·지도자 4명)으로, 진천선수촌에는 18명이 입촌했다. 근대 5종 김정환(광주시청), 역도 손현호·안시성(이상 광주시청), 육상 고승환·이재성(광주시청), 조정 김지선(목성그룹) 등이 선수촌에서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김국영(육상)과 김종이(하키), 박산열(레슬링), 박후성(역도) 지도자가 종목별 코칭스태프로 함께

하고 있다. 전남 소속 국가대표선수단은 7개 종목 9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도청의 근대 5종 ‘쌍두마차’ 서창완·김영하, 복싱 박초롱·주태웅(이상 화순군청), 수영 한효민(전남체육회), 유도 김지정(순천시청), 펜싱 권오민(해남군청), 역도 이현석(보성군청), 육상 세단뛰기 김장우(장흥군청) 등 9명이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편 이날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K-스포츠 실천 약속을 다짐하는 대표자 선서를 맡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5년 지난해 호주오픈을 제패한 매디슨 키스. <EPA·연합뉴스>

호주오픈 테니스 단식 우승 상금 40억

예선 12일·본선 18일부터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이 415만 호주달러(약 40억 5000만원)로 책정됐다. 호주테니스협회는 7일 올해 호주오픈 상금 규모를 발표했다. 올해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지난해 350만 호주달러보다 19% 오른 415만 호주달러다. 대회 총상금 규모 역시 1억1150만 호주달러, 한국 돈 1087억원 정도로 지난해 9650만 호주달러에 비해 16% 커졌다. 남녀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패하더라도 15만 호주달러, 1억4000만원을 받아 갈 수 있다.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상금은 호주달러(호주오픈), 유로(프랑스오픈), 파운드(윌블던), 달러(US오픈)로 지급 단위가 모두 다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대회 개최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단식 우승 상금 액수는 US오픈이 500만달러(69억4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윌블던 300만파운드(55억8000만원), 프랑스오픈 255만유로(39억5000만원), 호주오픈 350만 호주달러(31억6000만원) 순이었다. 올해 호주오픈 예선은 12일에 시작하고, 본선은 18일에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여자 핸드볼 H리그 개막…광주도시공사, 최강 SK에 도전장

10일 개막전서 맞대결…SK 3연패 도전·류은희 복귀 부산 등 강세

신한 SOL뱅크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가 오는 10일 경기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시즌 핸드볼 H리그는 지난해 11월 남자부 경기가 먼저 개막했고, 여자부는 세계선수권 일정 때문에 10일부터 열전에 들어간다. 8개 팀이 경쟁하는 여자부는 4월 19일까지 3라운드 팀당 21경기씩 치르며, 상위 4개 팀이 포스트시즌에 나간다. 경기 장소는 개막전이 열리는 광명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전주, 삼척 6개 도시를 순회한다. 올해 여자부는 최근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한 SK 슈가글라이더즈와 유럽에서 뛴 국가대표

에이스 류은희가 복귀한 부산시설공단, 최근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던 삼척시청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시즌 개막 후 19연승을 내달리는 등 20승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한 SK는 유소정이 외국 리그에 진출했으나 새로 송해리, 최지혜, 윤예진을 영입했고 득점력이 탁월한 강경민과 골키퍼 박조은이 건재하다. 지난 시즌 정규시즌에서 SK에 유일한 패배를 안긴 부산시설공단은 류은희의 복귀가 든든하다. 프랑스, 헝가리 리그에서 활약한 류은희는 지난해 6월 부산시설공단으로 이적했고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견인하며 제 뛴을 했다.

부산시설공단은 류은희 외에 베테랑 권한나와 최근 기량 발전이 두드러진 이혜원 등이 주축이다. 전통의 강호 삼척시청은 일본 국가대표 출신 긴조 아리사와 이연경, 정현희 등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고, 이효진은 인천시청에서 광주도시공사로 옮겼다. 개막전은 10일 오후 2시 광주도시공사와 SK의 경기로 열리며 류은희의 부산시설공단은 11일 오후 2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한다. 8개 팀 감독은 지난 시즌과 변화가 없고, 국가대표로 활약한 심해인이 부산시설공단 코치를 맡았다. 남자부 경기는 1월 아시아선수권이 끝난 뒤인 2월 5일 H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연합뉴스



부산시설공단 류은희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402회 정기연주회
2026 신년음악회 ‘만남’

일시 : 2026-01-1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2026 Grand Orchestra Week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